

# <九歌>에 나타난 君臣遇合\*

- <湘夫人>을 중심으로 -

류 명 희\*\*

<目次>

I. 서론	2. 향초로 접근한 군신우합
II. <湘夫人>에 나타난 君臣遇合	3. 靈巫儀式으로 접근한 군신우합
1. 男女相戀으로 접근한 군신우합	III. 결론

## I. 서론

굴원은 戰國時代 중·만기를 살았던 인물이다. 당시 중원의 정치문화가 神權에서 人本으로 韜도를 수정해 가면서 士人の 重道의식과 왕권의 政統의식이 相爭하는 가운데 周의 천자국 입지는 붕괴되어갔다. 그러자, 각국은 저마다 강국이 되는 비결을 ‘법칙과 제도’를 세우는 쪽에서 찾기 시작하였다.<sup>1)</sup>

\* 이 논문은 2009년도 부산대학교 인문사회 연구기금으로 작성한 것임.

\*\* 부산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1) 이를테면, 魏의 재상 李悝는 《法經》을 편찬하고 솔선하여 위나라에서 變法을 단행하였고, 楚의 吳起는 초나라에서 법률을 개편하였다. 戰國 중기에 商鞅은 秦에서 변법을 실행하였고, 또 韓의 申不害, 趙의 慎到 등은 자국에서 연이어 변법을 실행하였다. 이들은 모두 자국에서 실권을 장악하고 있던 정치가들로 잔존해 있던 노예주 귀족계급의 정치와 경제 통치를 청산하고, 봉건적인 정치 경제제도를 확립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인물들이다. 그들은 변법을 통해 구 귀족의 정치에 대한 전횡을 타파하고 관료정치로써 귀족정치를 대체하여 국가권력을 봉건군주에게 집중시킬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던 것이다.(이상은 줄고 <九歌>에 나타난 君臣遇合 -<湘君>을 중심으로- 《中國語文

그러나 굴원의 조국인 楚는 중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남방에 위치했던 관계로 중원의 이러한 혁신 바람의 영향을 크게 받지 못했다. 비록 전국 초기에 초의 吳起가 變法으로 일순간 강국의 신호탄을 만천하에 쏘았던 적은 있었지만<sup>2)</sup> 그의 혁신사상을 지지해주던 悼王의 죽음과 더불어 변법의 실행도 좌초하게 된다. 굴원 역시 전국초기의 변법가인 오기의 법치사상을 계승하여 초국을 개혁해보고자 했으나, 당시의 초는 중원과는 달리 여전히 중국고대사회에서 보이는 祭政一致 시대의 遺風을 그대로 지닌 귀족중심의 靈巫的 정치가 완전했던 관계로 이러한 신흥의 진보사상이 발을 붙이기에 적절하지 못하였다.<sup>3)</sup> 그리하여 법칙과 제도에 의거하여 초국을 혁신하고자 했던 굴원의 입장에서 보면, 초국의 이러한 巫史 문화현상의 만연은 참으로 큰 장애요소가 아닐 수 없었다.<sup>4)</sup> 그가 추구하고자 했

學》 제52집 9쪽 참조)

- 2) 《史記·吳起列傳》(西安: 三秦出版社, 1988): (그는) 법규를 명확히 하고 명령을 심사하여 결정하고, 당장 긴요하지 않은 관원은 감원하고, 왕족의 봉양에 소원한 자들은 제외하였으며, 戰士를 우대하고 그의 家屬들은 慰撫하였다. 주로 병력을 强盛하게 하는데 힘썼으며, 중흥으로 유세를 일삼는 그러한 사람들은 배척하였다. 그래서 남쪽으로는 百越을 평정하고, 북쪽으로는 陳國·蔡國을 併呑하고, 三晉의 군대(韓·魏의 군대)를 격퇴했으며, 서쪽으로는 秦國을 토벌하였다. 제후들은 楚國의 강성함을 두려워하였다. 明法審令, 捐不急之官, 廢公族疏遠者, 以撫養戰鬥之士. 要在强兵, 破馳說之言從橫<sup>1)</sup>者. 于是南平百越, 北并陳蔡, 却三晉, 西伐秦. 諸侯患楚之强.
- 3) 《漢書·地理志》: “초인은 무귀를 믿고, 예제에 부합되지 않는 제사를 중시하였다. 楚人信巫鬼, 重淫祀.” 여기서 ‘巫鬼’란 巫祝을 말함. 곧 巫祝에서, 귀신을 섬기는 것은 巫이고, 祭主와 贊詞者(찬송하는 문사나 언어)는 祝이라고 함. 훗날에는 連用하여, 占卜, 祭祀를 관장하는 것을 지칭하였음. 또한 ‘淫祀’란, 禮制에 부합되지 않는 제사를 말함.
- 4) 桓譚이 그의 《新論》에서 언급한 기록을 보면: 옛날에 초의 영왕은 사람됨이 교만방자하여 아랫 사람을 경시하고, 巫祝의 말만 믿어 친히 제단 앞에서 춤을 추었다. 吳人이 침입해왔다는 사실을 황급히 알렸음에도 靈王은 태연자약하게 복을 치면서 춤을 추었다. 昔楚靈王驕逸輕下, 神巫祝之道, 躬舞壇前, 吳人來攻, 其國人告急, 而靈王鼓舞自若.(《太平御覽》 권 735) 인간 영왕의 이러한 태도는 곧 국가의 大事를 神權에 맡기는 제사장의 태도라고 할 수 있다. 굴원은 이러한 巫史문화를 기저로 하고 있는 초국에서 그의 진보주의사상을 실현하고자 하였음.

던 ‘君臣遇合’의 구도는 성왕이 현인을 찾아서 그의 재능에 맞는 정사를 맡겨 초국을 법도가 통하는 부국으로 만드는 것이었다.<sup>5)</sup> 그러나 현재의 초국은 군신우합의 주권이 군왕 一人에게로 집중되어있었던 만큼 또한 군신우합의 병폐 역시 군왕 일인에게서 나올 수 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그는 군왕의 心治를 법치적 구도로 혁신시켜보고자 노력하였던 것이다.

다행히도 그의 정치생애 초기는 그의 主君인 懷王이 그의 정치적 견해를 지지해줌으로서 오기의 변법정신을 부활시켜, 憲令의 초안을 책임지고 정치변혁운동의 중임을 추진하였었다. 그러나 그 역시 ‘헌령’의 내용이 초국의 귀족집단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구세력의 모함으로 인해, 회왕의 노여움을 사게 되면서 그의 군신우합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고 따라서 그의 美政理想도 좌초하게 되었다.<sup>6)</sup>

그리하여 굴원은 현실정치에서 자신이 꿈꾸던 미정이상이 실현될 수 없었던 원인이 바로 이 군신우합의 실패에서 기인됨을 뼈저리게 절감한 나머지 그는 그의 詩篇을 통해,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그의 미정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예술적 장치를 통해, 이른바 정치서정시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기에 이른다.<sup>7)</sup>

5) 굴원은 그의 작품인 <離騷>에서, 고대 역사상의 경험을 끌어내어 이른바 현인은 기용하고 재능 있는 자에게 관직을 수여하는 “舉賢授能”의 聖君과 賢臣의 典範을 칭찬하는 것을 통해, 그의 “封爵을 받은 귀족이 너무 많음封君太衆”과 “대신에게 부여되는 책무가 너무나 막중함大臣太重”의 楚俗과 變革에 장애가 되는 舊귀족 집단에 대한 반대와 신흥역량에 대한 갈망을 표현하였다.

6) 《史記·屈原賈生列傳》：“상관대부는 굴원과 직위가 相等하여, 懷王의 총애를 쟁탈하기 위해, 굴원의 재능을 질투했다. 한 번은 회왕이 굴평으로 하여금 憲令을 초안하도록 하였는데, 굴평이 초고를 아직 마치지지도 않았는데, 상관대부가 보고나서는 이를 고치려고 하였으나, 이를 주지 않음에, 그를 참언하여 가로되: “왕께서 굴평으로 하여금 헌령을 만들게 하시자, 사람들이 모르는 이가 없게 되었습니다. (굴평)은 매번 헌령을 만들어 낼 때마다, 그 공을 내세워 즉 ‘내가 아니면 만들 수 없다’고 여긴다며 지껄여 대었습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노여워서 굴평을 멀리하게 되었다. 上官大夫與之同列, 爭寵而心害其能., 懷王使屈原造爲憲令, 屈平屬草稿未定. 上官大夫見而欲奪之, 屈平不與, 因讒之曰: ‘王使屈平爲令, 衆莫不知, 每一令出, 平伐其功, 以爲‘非我莫能爲’也’ 王怒而疏屈平.”

방금 언급했듯이, 고대사회에서의 군신우합이란, 군왕이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는 것인 만큼 신하의 입장에서 보는 군신우합이란 영원히 비극성을 면할 길이 없다. 굴원의 초사에 보이는 정치서정시가 우울할 수 밖에 없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필자는 《中國語文學》 제52집에 게재한 줄고, <九歌>에 나타난 君臣遇合 -<湘君>을 중심으로-에서, 이미 巫歌로 주지되고 있는 <상군>을 정치서정시라는 새로운 측면에서 바라보는 이유를 증명하고자 이 무가를 ‘군신우합’이라는 정치도식을 함축시키기 위한 예술적 장치로 간주한 바 있다.<sup>8)</sup> 그리하여 <상군>의 무가형식에서 主巫가 神·巫交接을 통해 추구하고자한 巫的世界를 정치인으로서의 굴원이 군신우합의 성취를 통해 추구하고자 한 美政世界와 동일시하여, 이를 증명하기 위한 구체적 방식을 4종 즉 男女相戀으로 접근한 군신우합·향초로 접근한 군신우합·貞女の 丹心으로 접근한 군신우합·靈巫儀式으로 접근한 군신우합이라는 정치도식으로 유형화하여 이를 증명한 바 있다. 필자는 본고의 텍스트인 <湘夫人>에서도 이를 <상군>과 관련된 한편의 組曲으로 보고 있는 만큼 <상군>에서 사용했던 방법을 가지고 <상부인> 역시 무가가 아닌 정치서정시로 보고자한다. 그리하여, <상부인>의 연구방법도 <상군>과

## 7) 예시 1 : &lt;九章·惜往日&gt;

乘騏驎以馳騁兮， 無轡銜而自載。	준마를 타고 종횡으로 달려 나가고 싶으나, 자신은 오히려 말에 고삐 채우고 입에 재갈 물릴 것을 준비하지 못했도다.
乘汜淪以下流兮， 無舟楫而自備。	뗏목에 타고 물길을 따라서 遠航을 하고 싶으나, 자신은 정작 또한 배를 저어갈 노를 준비하지 못했도다.
背法度而心洽兮， 辟與此其無異。	법도를 어기고 私的인 의지대로 일을 처리한다면, 곧 이상의 정황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 예시 2 : &lt;離騷&gt;

固時俗之工巧兮，	속인은 본시 기회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는데 뛰어나서,
偁規矩而改錯。	법도를 어기고 또한 정책도 바꾸어 버린다네.
背繩墨以追曲兮，	시비의 표준을 벗어나서 邪曲을 추구하고자,
競周容以爲度。	다투어 구차하게 비위 맞추는 것을 법도로 삼는다네.

8) 앞의 줄고의 서론에서, 巫歌로 알려져 있는 <湘君>과 <湘夫人>을 정치서정시로 보게 된 동기와 목적 및 연구방법을 밝혀두었으니 참조바람.

동일한 시각으로 보아, 논문전개의 방식을 텍스트의 내용에 의거하여, 남녀상련으로 접근한 군신우합·향초로 접근한 군신우합·靈巫儀式으로 접근한 군신우합이라는 3종 방식으로 제시하여, 본 무가가 정치서정시임을 증명해 보이려고 한다.

## II. <湘夫人>에 나타난 君臣遇合

<湘夫人>에 나타난 군신우합은 줄고 <九歌>에 나타난 君臣遇合 -<湘君>을 중심으로-<sup>9)</sup>의 후속편으로 작성한 것인 만큼 이 역시 정치성을 띤 주제를 무가형식에 함축시킨 한편의 정치 서정시로 보고자 한다. 줄고 <<湘君>에 나타난 君臣遇合>에서, II. 굴원의 생애와 美政理想<sup>10)</sup>의 항목에서 밝혔듯이 굴원은 시인이거나 오�히려 한 사람의 정치가였다.

아무리 <상군>의 후속편으로 작성한 논문이라고 해도 발표 지면이 서로 다른 관계로 본고의 논리 전개의 편의를 위해, 다시 한 번 기본적인 이해를 살피고 들어가야 할 것 같다. 먼저 논제에서 표기한 ‘군신우합’이란, 역사와 현실 속에서 ‘군·신’이 동일한 법도와 기준을 가지고 만나서 화합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으로 밝혀둔다.<sup>11)</sup> 다음은 <상부인>이라는 무가를 정치서정시로 보고자하는 이유를 작가 굴원의 생애와 그가 추구했던 정치이상을 요약해 보임으로써 이에 대신하고자 한다.

굴원은 청년시대부터 조정에 입문하여 초국의 충신인 左徒로서 초국의

9) 《中國語文學》 第52輯(2008.12)

10) 같은 논문, 8-21쪽.

11) 王逸의 <九章·惜往日>《楚辭章句》(商務印書館, 1937)에서는 바로 “선왕(희왕)의 공업을 받들어 후세에 두루 비추고, 법령중의 모호한 부분은 의문점이 남지 않도록 밝히고자 하였네. 奉先功以照下兮, 明法度之嫌疑.” 그리하여 前賢의 역사경험을 통해, 일찌감치 시인은 “군신 쌍방 간에 서로 이득이 되는 君臣相得”의 중요성을 말하고, 「君臣遇合」이 개인의 榮辱에 관계될 뿐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정치변혁의 성공과 실패에 관계가 됨을 말하고 있다.(이상은 같은 논문 주석2) 재인용)

내정과 외교활동에 참여하였다. 뿐만 아니라, 초국의 '헌령'을 초안했으며, 齊國과 동맹체결을 주관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懷王의 신임을 한 몸에 받으면서 회왕을 통해, 국내로는 현자를 천거하고 재능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소위 '擧賢授能'의 풍토를 확립하여, 국가를 부강시키고 법도가 살아 있는 '國富法立'의 정치이상을 실현하고자 했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齊나라와 연합해서 秦나라에 항거하는 '聯齊抗秦'의 정책을 통해, 진나라의 침략을 저지하고 나아가서 중국을 통일하는 위대한 목표를 실현하고자 했다. 그러나 당시 초국의 上官大夫였던 靳尚을 대표로하는 귀족집단의 모략과 이간으로 회왕의 신임을 잃으면서 그의 정치주장은 좌초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대략 회왕 16년 전후에 굴원은 초국조정의 권력핵심으로부터 축출되면서, '三閭大夫'라는 직위로 강등 되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적극적으로 조정에 참여하던 중 재차 제나라에 사신으로 파견되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이로써 파괴된 양국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정치적 쾌거를 이룩한다. 그러나 이때에 근상의 무리들이 조정에서 그 세력을 확대해나갔던 관계로, 초국은 군사와 외교상에서 잇달아 좌절과 패배를 맛보게 되었고, 이러한 형세의 압박으로 굴원은 초나라 수도인 郢都를 떠나서 漢北 일대를 떠돌게 된다.

회왕 30년에 秦昭王이 초회왕에게 맹약의 체결을 제의해 오자, 굴원은 이를 결연히 반대하였으나, 회왕의 아들인 子蘭은 오히려 이를 극력 권하였다. 결과 회왕은 진에 들어간 이후, 수년 후에 진에서 객사하게 된다. 그리하여 그의 아들 頃襄王 熊이 새로운 1대의 초왕이 되면서, 또 그의 아우인 자란을 令尹으로 임용한다. 굴원은 이로 인하여 다시 엄중한 정치적 좌절에 부딪치게 되면서 이제 다시는 '군신우합'을 통한 자신의 정치이상을 실현할 기회를 놓치게 된다. 그 이후, 굴원은 대략 경양왕 2년 장기간 생활해온 영도를 떠나서 양자강을 따라 東下하였고, 그 후 沅·湘 일대를 유랑하다가 경양왕 21년 秦將軍 白起가 초국의 수도 영도를 공파하였다는 소식을 들은 후 滄羅에서 자진한다.<sup>12)</sup>

12) 이상은 같은 논문, 8-11쪽 참조.

그는 이렇게 그의 전 생애를 통해 분투했던 애국심의 면면을 그의 문학 작품 특히 <離騷>에서 성군과 현신이 만나서 결합하는 ‘군신우합’이라는 정치유형을 가지고 형상화시킴으로써, 중국 문학에 정치서정시라는 새로운 갈래를 개척하는 족적을 남기게 되었다.<sup>13)</sup> 이와 같이 자신의 목숨을 던져 추구하고자 했던 그의 정치이상은 크게 다섯 가지, 즉 ① 國富法立 ② 현자천거·재자임용 ③ 봉당금지·상벌규명. ④ 평시농사·戰時전쟁 ⑤ 민본사상 등으로 대별될 수 있다.<sup>14)</sup> 그러나 그의 이러한 정치이상은 실제로 전국초기 초나라에 변법을 실시하여 초국을 강국의 반열에 올렸던 오기가 그의 주군인 悼王의 죽음과 함께 그의 정치이상이 좌절되고 말았듯이 굴원 역시 회왕의 외면과 수구세력의 저항을 받아 끝내는 그의 이상을 실현시키지 못하고 비운의 일생을 마치고 말게 된다.

본고에서 거론하고자하는 <상부인> 역시, 그의 자매편인 <상군>과 마찬가지로 主巫가 추구하는 무적세계에서의 신무교접을 성사시키지 못하는 비극적인 종말을 보여주는 내용이다.<sup>15)</sup> 여기서 ‘신무교접’이라고 하는 이유는 <상부인>의 서정방식이 ‘主巫’가 男神인 상군으로 분장하여 그의 애신인 상부인을 迎神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를 실질상에

13) II.2인 ‘舉賢授能’ 항목에서 굴원은 고대역사상에 생존했던 聖君과 賢臣의 典範을 찾아 직접 그의 작품인 <이소>와 <惜往日> 속에서 본인의 미정이상을 표현하고 있다. 여기서는 성군의 해안이 없었다면 현신의 재능이 死藏되었을 것임을 피력하여 고대성왕의 公心 우선의 태도를 찬미하여 현재 楚俗과 變革에 장애가 되는 舊귀족 집단의 ‘心治’에 대한 반대와 신흥역량에 대한 갈망을 言外에 함축시키고 있다.(같은 논문 주석40) 재인용)

14) 이상은 같은 논문, 12-20쪽 참조바람.

15)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前曲인 <湘君>의 내용을 간략하게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전곡에서 湘夫人으로 분장한 女巫는 愛神인 湘君과의 相通을 위해서 그 첫 단계로 자신의 용모와 내심의 美德을 부각시켰고; 제2단계에서는 그를 맞이하러 나가는 迎神舟의 곳곳을 향초로 장식하여, 愛情巫術의 효과를 기도하였고; 제3단계에서는 貞女的 丹心으로 그와의 사이에 장애로 놓여있는 結빙의 江水를 직접 깨치며 나아가는 열정을 부각시켰고; 제4단계에서는 靈巫儀式을 빌려 그와의 相通을 기원하였다. 그러나 女巫의 이러한 모든 ‘請神’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湘君은 그의 모습을 끝까지 드러내지 않았다.

서 보면, ‘神神交接’이나, 종교의식 상에서 보면, 사실 ‘巫’가 ‘신령’을 향해 請神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무’는 또한 위계 상에서 보면, 신령과 동급이 아닌 하위단계인 巫官에 속하며, 애신인 상부인은 무관의 靈修가 되는 것<sup>16)</sup>이므로, 필자가 말하는 신무교접이란, 세속의 정치구도에서 보이는 ‘군신우합’과 同構現象의 관계라는 것을 도출해낼 수 있는 개연성이 보인다고 생각된다. 그리하여 필자는 이의 도출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즉 <상부인>에서 主巫가 신무교접을 갈망하는 辭說<sup>17)</sup>을 중점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만큼 무가의 전체 구문이 남녀지간의 애정의 상통을 위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아, 텍스트의 주체인 주무가 그의 영수인 상부인과의 상통이라는 주요목적 달성을 위해 男女相戀이라는 애뜻한 정감방식을 이용한다는 것; 당시 楚俗에서 보편화 되어있는 향초의 애정 무술력을 빌린다는 것; 자신의 귀중품을 獻祭하거나 증여한다는 것 등이다. 이러한 3종 방식은 텍스트 상에서 보면, 바로 시인 굴원이 추구하는 ‘군신우합’의 성취라는 本意를 담고 있는 관계로, 이를 본문에서 하나의 표층구조로 간주하여 각론해 보고

16) 굴원은 楚國에서 三姓(昭·屈·景)의 真人<sup>1)</sup>群에 속하는 귀족이므로, 그 역시도 巫的 성격의 소유자라는 것을 감안해야한다. 실제로 그는 <이소>에서도 그가 모시고 있던 왕인 懷王을 ‘靈修’라고 칭했으니 굴원 역시도 그의 巫官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단서들은 바로 굴원이 생존했던 시대가 곧 政教合一 시대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니, 적어도 초국에서의 巫歌, 아니 楚辭는 동시에 정치성을 띤 神曲이라고 해도 지나친 표현은 아닐 것이다.

17) 「辭說」이라는 용어를 개념화 시켜줄 필요성을 느낀다. 왜냐하면, 우리말 사전에는 이를 “늘어놓는 말이나 이야기”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의 의미에 대하여 정의를 내려두지 않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이다. 필자가 본고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辭說의 용어는 우리 말에서 사용하는 이 내용과는 사뭇 다르다. 본고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辭說」의 「辭」字는 “楚辭”의 「辭」에서 따 온 것이다. 김인호의 견해에 의거하면, 「辭」는 巫祝이 神이나 死者에게 고향 때 읊거나 노래 부른 祝辭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辭」란 神語性을 띤 말이라고 간주할 수 있으므로 필자는 여기에다가 우리가 읽기에 편리하도록 말씀 「說」字를 하나 더 첨가하여 필자 자의로 「辭說」이라는 용어로써 사용하여 위의 의미를 표현하기로 한다.(줄고 <湘君>과 <湘夫人>을 통해 본 巫의世界 『中國語文學』 第50輯 148-149쪽 참조)



자 한다.

1. 男女相戀으로 접근한 軍神우합

‘男女相戀으로 접근한 軍神우합’이라는 제목에서 ‘남녀상연’이라는 題意는 사실 <상부인>의 전체 기조가 되는 것이나, 여기서 주제연구로 제시한 3종 방식중의 하나로 설정한 이유는 崑원이 표현하고자하는 ‘軍神우합’이라는 정치도식의 표현방법이 단순한 것이 아님을 드러내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텍스트의 全文 역시 4개 단계 즉 발단·전개·절정·결말로 구분하여 위에 제시한 3종 방식을 이 안에서 단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주무의 상부인을 향한 심리작용의 기복을 보다 사실에 가깝게 거론해 보고자 한다. 그래서 이로부터 崑원이 그의 정치생애를 통해 일관성 있게 추구했던 ‘軍神우합’이라는 정치도식의 다양성을 천착하여, 본 巫歌가 기실은 崑원의 기구했던 정치역정과 그의 미정이상을 함축시킨 정치서정시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자 한다.

<상부인>은 前曲인 <상군>처럼 시작하는 첫머리가 모두 主巫인 巫官이 그의 主神과 사전에 약정했던 상봉장소인 洞庭湖의 北岸에 위치한 ‘北渚’라는 장소로 영신을 나가는 것을 발단으로 하고 있다. 다만 <상군>에서는 무관으로 분장한 여무가 주신인 상군을 마중 나가는 것이나, <상부인>에서는 무관으로 분장한 남무가 주신인 상부인을 마중 나가는 것이 다를 뿐이다. 이와 같이 시작하는 발단부터 남녀지간의 만남이라는 구도로 설정하여, 제때에 나타나지 않는 상대방으로 인해 노심초사하는 불안한 정서를 주신을 기다리는 주무를 통해 드러냄으로써, 이들 신무지간의 미래에 대한 적신호를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남녀상연의 애뜻한 연정을 빌어 표현한 신무지간의 불여의한 만남의 구도는 곧 본 텍스트에서 시인이 나타내고자 하는 ‘軍神우합’에 대한 난관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아, 본 항목의 題意가 무가가 아닌 정치서정시를 부각시키는 구도임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본 제의에 해당하는 단락은 총 16구로 되어있다. 그러나 이를 보다 구체화해

보면, 前 8구는 발단에 상당하고 後 8구는 전개와 단락에 상당하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

먼저 발단의 단계를 보면, 만추의 저녁, 동정호의 북안에 위치한 작은 섬에서 주무가 그의 주신인 상부인을 초조하게 기다리는 사실로 시작되고 있다. 그 例詩를 보면:

- |                            |                                   |
|----------------------------|-----------------------------------|
| 1. 帝子降兮北渚,                 | 상부인께서 이미 북저(北渚)에 강림하셨다가에,         |
| 2. 目眇眇兮愁予;                 | 눈이 뚫어지라 살펴보았지만 가슴 속에 애수만 차오릅니다.   |
| 3. 嫋嫋兮秋风,                  | 서늘한 가을바람만 끝없이 불어와,                |
| 4. 洞庭波兮木叶下;                | 동정호 수면위로 낙엽이 지면서 물결이 잔잔히 일어납니다.   |
| 5. 登白蘋兮骋望,                 | 백번초 우거진 언덕에 올라서서 아득히 먼 곳을 응시해봅니다. |
| 6. 与佳期兮夕张。                 | 오늘 저녁에佳人(佳人)과 만나기로 약속하였기에.        |
| 7. 鸟何萃兮蘋中,                 | 산새는 어찌하여 부평초 위에 깃을 치고,            |
| 8. 罾 <sup>18)</sup> 何为兮木上? | 물고기는 왜 나무위쪽에 걸려 있는가?              |

위의 예시는 주무가 그의 주신인 상부인이 이미 북저에 강림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의 출현에 시선을 집중하고 있으나, 고대하는 애신은 보이지 않고 동정호의 쓸쓸한 秋景만이 그의 시야에 펼쳐져 있을 뿐이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백번초(白蘋草)’가 우거진 언덕으로 올라가서 아득히 시선을 보내보지만 절망감만 더해질 뿐이다. 그러자 자신도 모르게 그녀와의 만남을 해결해 줄 매자를 찾아보나 그것 역시 여의치 않다. 그리하여 그는 7, 8구에서 “산새는 어찌하여 부평초 위에 깃을 치고, 물고기는 왜 나무위쪽에 걸려 있는가?”라는 비유어로서 주무의 낙심천만한 사실을 토해내고 있다. 여기서 ‘새鳥’와 ‘물고기罾’은 중국문학상에서 전령사로 상징이 되는

18) 필자는 여기서 “罾”을 漁網이 아닌 물고기의 代喻語로 보았다.(줄고 <湘君>과 <湘夫人>을 통해 본 巫の世界 『中國語文學』 第50輯, 160쪽)

것으로, 이들 兩物은 지금 그들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 즉 나무와 물속이라는 영역을 벗어나 있음을 개탄함으로써 주무의 애정 추구에 이상기운이 내습하고 있음을 예고하는 것으로 보인다.

말하자면, 여기서 주무는 자신의 주신을 향한 상통이 자체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예감에 매자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세속의 입장을 내비치고 있으나, 현실은 전혀 그의 편이 아님을 깨닫고 있는 것이다. 시인은 주무의 이러한 신무지간의 구조를 세속적 애정구도를 가진 남녀상연의 방식으로 표현함으로써, 실의에 젖은 연인의 모습을 구체화시켜 현재 주무의 주신에 대한 기다림이 야기하는 불안한 정서에 쉽게 공감대를 형성하게끔 하고 있다. 시인의 이러한 설정은 바로 그가 표현하고자하는 정치도식, 즉 군신지간의 상통관계에서 야기될 수 있는 정치유형의 일단을 함축시키기 위한 표층구조로 이해가 된다.

제2단계로 오면, 주무가 주신에 대한 영접이 여의치 못하자 지친 심신을 뒤로 하고 잠시 애신의 풍격을 사모하는 쪽으로 빠져들다가 다시금 생각을 털고 일어나서 그를 영접하러 나가는 충정을 보이고 있다. 예시를 보면 :

- 9. 沅有芷兮醴有兰,      원수(沅水) 주변엔 백지(白芷:藍)가 있고 예수(澧水) 주변에는 유란(幽蘭)이 있네,
- 10. 思公子兮未敢言;      그대를 남몰래 사모하기에 감히 입을 떼기가 어렵습니다.
- 11. 荒忽兮远望,            멍하니 아득하게 시선을 던지고 있노라니,
- 12. 观流水兮潺湲;        눈앞으로 완만하게 흘러가는 강물(沅水와 澧水)만이 보입니다.
- 13. 麋何食兮庭中,        미록(麋鹿)은 왜 정원으로 내려와서 먹을 것을 찾고,
- 14. 蛟何为兮水裔;        교룡은 어찌하여 물가로 나와서 노니는가?
- 15. 朝驰余马兮江皋,      이른 아침이면 나는 말을 타고 분주히 강 언덕으로 달려 나가고,
- 16. 夕济兮西澨;          해질 무렵이며 대강서안(大江西岸)으로 건너옵니다.

주무는 영신에 지친 나머지 멀리 沅水와 醴水의 주변에서 자라고 있는 “백지菇”와 “유란蘭”을 너리에 떠올리며 이 두 가지 향초를 상부인과 동일시하는 경모의 정감을 보이고 있다.(9, 10구) 여기서 “백지”와 “유란”이 당시 사람들에게 治病的 특성을 보여주는 약초<sup>19)</sup>인 점을 감안할 때, 그의

19) 菇 : 향초의 한가지로 뿌리는 白芷라하며, 그 길이가 1尺남짓하며 白色을 띠고 있음. 혹은 藥이라고도 칭함. 《神農本草經》에서는 白芷를 中品에 배열하고, 이의 성질은 따스하고 맛은 매운 것으로 기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본 향초는 또한 중풍퇴치(祛風解表)와 排膿, 消腫, 止痛 등의 효험이 있을 뿐 아니라, 백지의 뿌리의 부분에 함유하고 있는 白芷素는 관상혈관을 확장시키는 작용도 하여, 中樞神經에 대하여 흥분작용을 일으키므로 두통치료나 유행성감기 등의 병증을 치료하는데도 사용한다고 한다. 고대에는 이를 목욕물에 많이 사용하였다고 한다.(潘富俊 著, 《楚辭植物圖鑒》(上海: 上海書店出版社, 2003년) 18-19쪽 참조)

《禮記·內則》에는 “古時父母長輩常賞賜家族婦女飲食, 布帛及茵蘭.”라는 기록도 보임. 또한 王逸도 “行清潔者佩芳, 德仁明者佩玉, 能解決者佩鱷, 能決疑者佩玦, 故孔子無所不佩.”라고 하여 공자도 그의 몸에 항상 白芷를 佩用하고 다녔음을 알 수 있음.

幽蘭 : 역시 향초의 일종으로, 酈道元, 《水經注》의 기록에 “零陵郡都梁縣西小山上, 有渟水, 其中悉生蘭草. 綠葉紫莖, 澤蘭如薄荷, 荊·湘·嶺南人家多種之.”라고 하여, 이는 자주색 줄기에 薄荷와 유사하며, 荊·湘·嶺南 일대의 인가에서 많이 심는다고 함.

淸·乾隆28년에刻한 《東湖縣志》에 기록된 歲時民俗중에, 삼입된 雷思霈라는 사람의 <迎春卽事>라는 시에서 “성안에 아녀자들 춘화의 아름다움 다투는 놀이를 하고, 彩額이 있는 거리마다 요란하게 북을 치면서 돌아다니네. 당인벽유는 객좌로 부르고, 화편도경은 관아로 보낸다. 버드나무를 심고 매화를 탐방하는 계절이 오면, 다시 또 난초 심고 국화 파종하는 집을 묻는다. 《형초세기》에는 풍토를 기록하고, 宜春의 두 글자로 紅霞를 표현하네. 城中兒女鬪春華, 彩額街街鼓亂搗. 唐印碧油呼客坐, 花鞭桃梗送官衙. 才逢插柳探梅候, 又問栽蘭種菊家. 《荊楚歲時》風土記, 宜春雙字寫紅霞”라는 자료가 보이는 가하면, 梁나라 사람인 宗懔의 《荊楚歲時記》에는, “오월오일엔 난초로 목욕을 하는 절후라고 칭한다. 초나라 지방 사람들은 百草놀이(봄놀이)를 하고, 또한 백초지회를 즐긴다. 썩을 깨어서 인형을 만들어, 문짝위에 걸어, 이로써 독기를 물리친다. 창포를 새기거나 가루로 만들어서, 술에 띠운다. 五月五日, 謂之浴蘭節, 荊楚人并蹋百草, 又有鬪百草之戲. 采艾以爲人形, 懸門戶上, 以穢毒氣, 以菖蒲或鏤或屑, 以泛酒. (夏至)是日, 取菊爲灰, 以止小麥囊.” 등의 자료가 보임.

굴원도 <離騷>에서, “學賢授能”의 정치를 주장한 이후, 천지를 神游하면서 “上下究索”의 환상경계로서 이상의 추구를 표현하면서, 주로 자신의 “上求失

애신에 대한 경모의 質을 가늠해볼 수가 있겠다. 그리고는 이어서 그에게로 다가갈 수 있는 길을 가로 막고 있는 二水의 무정한 표정성[潺湲]을 감지하면서, 다시 또 자신도 모르게 “미록(麋鹿)은 왜 정원으로 내려와서 먹을 것을 찾고, 교룡은 어찌하여 물가로 나와서 노니는가?”(13, 14구)라는 이른바 ‘觸物生情’의 감회를 연이어 토해내고 있다. 여기서 주무가 말하는 ‘미록’과 ‘교룡(蛟龍)’은 제각기 산속과 심연에서 살고 있는 영물들임에도 불구하고, 전자는 정원으로 후자는 물가로 나와서 정원과 물가에서 살고 있는 일반 미물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주무의 이러한 사설은 바로 현재 그의 신무교접에 대한 암운의 징후에 대한 출처를 암시하는 것으로 이 역시 군신우합이 어긋나게 되는 根因을 내포한 장치로 보아진다. 말하자면, 주군을 가까이서 평심으로 모시고자 하나 주군을 둘러싸고 있는 측근들의 발호로 인해 주군과의 만남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징후를 함축시킨 것으로 이해된다.<sup>20)</sup>

敗”의 정황을 표현한 이후, 天庭의 실패이후에도 여전히 “유란을 엮어 달고 목을 길게 빼어 기다린다.結幽蘭而延佇” 그러면서 “楚宮에 미녀가 없음을 슬퍼할 때哀高丘之无女” 또다시 “玉樹가지를 꺾어 佩飾에 보태고折瓊枝以繼佩”,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미녀를 찾는다. 相下女之可詒”라고 하여, 향초를 엮어서 몸에 달거나, 修飾으로 하여 군왕과의 相通을 추구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음. 아마도 여기서 제시한 ‘菡’와 ‘幽蘭’은 당시 사회의 衆民들에게 상당히 유익한 약초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 터라 世人의 사랑과 존중의 대상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됨. 하여서 본 巫歌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治病的 속성을 지닌 이 二物에서 凡人과 차별화를 지니고 있는 神女的 풍모를 감지하여, 主巫의 愛神에 대한 神格의 높이를 암시해 주고 있는 듯함.

20) 시인은 《九章·惜往日》 중에서 그의 主君에 대한 안타까운 정감을 표현한 것이 보인다. 예시를 보면 :

秘密使之載心兮, 나는 국가의 기밀을 마음속에 넣어 두었고,  
雖過失而不治. 설령 과실이 있다고 해도 군왕께서 추궁하지 않았네.  
.....  
何貞臣之无罪兮, 왜 충신으로서 죄를 지은 적이 없거늘,  
被離謗而見尤. 오히려 비방에 몰려 책벌을 받아야하는 것인가.  
慚光景之誠信兮, 진정 부끄럽도다 하늘의 양광은 비추지 않는 곳이 없거늘,  
身幽隱而備之. 내가 거처하는 곳은 으스스한 곳이어서 陽光의 따사로움을 느끼지 못하겠네.

이에 대한 반증은 15, 16구의 “이른 아침이면 나는 말을 타고 분주히 강 언덕으로 달려 나가고, 해질 무렵에야 대강서안(大江西岸)으로 건너옵니다.”라는 것이다. 여기서 주무는 전혀 현신의 기미가 없는 주신을 향해 일방적인 구애의 행위를 보이는 것으로서, 이는 곧 정치유형에서 주군과의 우합을 갈망하는 人臣의 입장과 동일시되는 구조로 보아진다.

요컨대, 시인은 이와 같이 그의 군신우합에 대한 열망을 신무교접이라는 무가형식에 맞추어 남녀상연이라는 가장 친밀도가 높은 표현방식을 통해 드러냄으로써 그의 주군에 대한 사모의 열정이 더 이상 간절할 수가 없도록 하였다. 주무의 이러한 신무교접은 바로 세속의 입장에서 보면 군신간의 遇合에 상응하는 것으로 이는 靈巫國家인 초국의 巫史文化를 반영한 것에 다름 아니다.<sup>21)</sup> 무관인 동시에 人臣이기도 한 굴원의 신분상의 특징을 두고 본다면, 神巫이든 君臣의 관계이든 이들 兩者는 모두 巫界나 人界를 경영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사리상, 이들은 가정에서의 부부지간의 관계와 동구현상을 띠었다고 보아진다. 그래서 아마도 굴원은 신무교접을 남녀지간의 애정으로써 표현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고로 여기에는 자연히 ‘군신우합’이라는 도식이 하나의 정치유형으로 부각될 수 있는 개연성이 보이므로 본 텍스트를 한편의 정치서정시라고 제시해 보는 것이다.

## 2. 향초로 접근한 군신우합

제3단계는 본 텍스트의 주요범주(17구~34구)에 속하며 또한 전체 무가

21) 桓譚이 그의 《新論》에서 언급한 기록을 보면: “옛날에 초의 영왕은 사람됨이 교만방자하여 아랫사람을 경시하고, 巫祝의 말만 믿어 친히 제단 앞에서 춤을 추었다. 吳人이 침입해왔다는 사실을 황급히 알렸음에도 靈王은 태연자약하게 북을 치면서 춤을 추었다.”(昔楚靈王驕逸輕下, 神巫祝之道, 躬舞壇前, 吳人來攻, 其國人告急, 而靈王鼓舞自若.)(《太平御覽》 권 735) 인간 영왕의 이러한 태도는 곧 국가의 大事를 신권神權에 맡기는 제사장의 태도로서 그 밑의 신하들은 자연 모두 무적 성격을 소유한 인물들로 추리할 수 있다.(이상은 줄고 <九歌>에 나타난 君臣遇合 - 湘君을 중심으로 - 《中國語文學》 第52輯 주석32) 참조)

에서 절정부분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여기서 제시되고 있는 주무의 사설은 주로 각종 향초를 주요소재로 하여 신령과의 관계를 소통시키고자 하고 있다.

그러면 사설의 첫머리를 보도록 한다. 바로 앞 단계에서 주무는 영신에 집중하고 있던 중에 누군가에게서 애신이 주무를 부른다는 전언을 듣게 된다.(17구) 본 단계는 주무가 이러한 전언을 듣고 반응을 보이는 것이 내용의 중심인데, 그의 반응은 다른 것이 아닌 전언을 듣자마자 수레를 타고 쏜살같이 달려 나가서(18구) 그녀와 함께 거주할 안락한 ‘水中 香草건물’을 건축하는 것이다. 예시를 보면 아래와 같다.

- 17. 聞佳人兮召餘,      듣자하니 미인이 나를 부른다고 하니,
- 18. 將騰駕兮偕逝;      수레를 타고 쏜살같이 달려가서 미인과 더불어 함께 나가렵니다.
- 19. 築室兮水中,      수중에 궁전같은 집을 짓고,
- 20. 葺之兮荷蓋;      푸른 하엽(荷葉)을 엮어 지붕으로 덮었습니다.
- 21. 蓀壁兮紫壇,      손초(蓀草)로 담장을 만들고 자색 조개껍질로 정원 바닥을 깔았으며,
- 22. 播芳椒兮成堂;      대청의 사벽(四壁)은 온통 향기로운 산초를 짓이겨서 도벽(塗壁)을 하였습니다.
- 23. 桂棟兮蘭橑,      계목(桂木)으로 들보(屋樑)를 만들고 목란(木蘭)으로 서까래를(屋椽)를 만들었으며,
- 24. 辛夷楣兮藥房;      신이(辛夷)로는 문틀을 만들고 백지(白芷)로는 침실 안을 장식하였답니다.
- 25. 罔薜荔兮爲帷,      벽려(薜荔)를 엮어서 녹색 휘장을 만들고,
- 26. 擗蕙櫨兮既張;      혜초를 분질러서 병풍을 만들어 펼쳐놓았습니다.
- 27. 白玉兮爲鎮,      새하얀 백옥으로는 좌석을 누르는 석진(鎮)을 만들고,
- 28. 疏石蘭兮爲芳;      곳곳에는 석란(石蘭)을 배치하여 향기를 진동하게 하였습니다.
- 29. 芷葺兮荷屋,      연잎 지붕위에 다시 백지(白芷)를 한 겹 더 덮어 씌우고,

30. 繚之兮杜衡;      집주변의 사방은 향기가 진동하는 두형(杜衡)으로  
에워쌌습니다.
31. 合百草兮實庭,  
32. 建芳馨兮廡門;  
정원 가득히 각종 향초를 심어놓고,  
대청 아래 회랑과 대문 쪽에도 온갖 향화(香花)를  
즐비하게 심었습니다.
33. 九嶷纘兮並迎,  
구위산의 중신(衆神)이 상부인을 영접하러 분분이  
강림하니,  
34. 靈之來兮如雲;  
자욱하게 펼쳐진 채운(彩雲)처럼 신령의 행차가 끝  
이 없이 이어졌습니다.

이상의 19구에서 32구까지는 애신이 거쳐할 수중 건축을 하고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19, 20구에서는, 수중에 집을 짓고 이의 지붕을 푸른 연잎으로 덮고 있다. 21, 22구에서는 담장은 蓀草로 에워싸고, 정원의 바닥은 조개껍질로 깔았으며, 대청의 사벽은 방향이 진동하는 花椒 열매를 짓이겨서 도벽을 하였다. 23, 24구에서는 서까래(屋椽)는 木蘭의 목재로 만들고 들보(屋樑)는 桂木을 목재로 하였다. 25, 26구에서는 휘장은 薜荔를 엮어서 녹색으로 치장을 하였고 병풍은 蕙草를 분질러서 이를 엮어 둘러쳤다. 27, 28구에서는 좌석을 누르는 席鑲은 새하얀 백옥으로 만들고, 또한 여백이 있는 공간마다에는 石蘭을 배치하였다. 29, 30구에서는 연잎으로 덮은 지붕을 다시 또 백지를 가지고 한 겹 더 덮어 씌우고, 건물의 사방은 향기가 진동하는 두형으로 둘러쌌다. 31, 32구에서는 정원에는 온갖 향초를 넘치도록 심어 놓았으며, 대청 아래의 회랑과 대문 쪽에는 온갖 향기 물씬 풍기는 꽃들을 즐비하게 심어놓았다.

이상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가옥의 자재나 장식 혹은 공간의 면면 등이 모두 향초·향목 내지는 향화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sup>22)</sup> 게다가 가옥이 건축된 장소 또한 육지가 아닌 수중이라는 점도 특이하다. 굴원은 이렇

22) 필자는 여기서 이들 三種의 식물을 '香草'라는 개념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왜냐하면, 香木이나 香花도 최초의 모습은 草本 식물의 형태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게 그의 애신이 거주할 공간을 건축함에 있어서 그 가옥이라는 대상물과 그 건축물의 장소를 속인의 그것과 차별화시킴으로서 시인의 의도를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렇다면, 시인의 이 뚜렷한 의도란 무엇인가? 이는 다름이 아니라 楚俗에서 회자되고 있는 향초에 대한 무속적 신앙을 통해 그가 기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잠깐 분석의 편의를 위해, 초속에서의 향초에 대한 이러한 무속적 의미를 간략하게나마 언급해야 할 것 같다. 이미 줄고 <九歌>에 나타난 君臣遇合 -<湘君>을 중심으로-에서 언급했듯이, 초속에서는 주로 남녀지간의 관계를 소통시키는 매개로써 향초를 사용하였다. 그들은 향초가 바로 애정에 대한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주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서, 남녀지간의 혼사어나, 남녀상열에 이를 사용해 왔다.<sup>23)</sup> 그래서 이로 인해, 향초는 초인의 靈巫 문화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

23) 清·乾隆 19년 宗陸堂刻本の 《荊門州志》：“二月，花朝。納采問名多以是日爲吉，移接花果。”(이월은 꽃들의 생일달이다. 납채와 문명은 대체로 이 날을 길하다고 여기며, 꽃나무를 이식하고 果樹를 접목한다.)  
光緒 8년의 板本人 《孝感縣志》：“月十五日爲花朝，婚嫁，穿幼女耳。”(2월 15일은 百花의 생일날이므로, 시집가고 장가든다. 어린 딸의 귀까지 뚫는다.)  
聞一多 <高禘郊社祖廟通考跋>《清華學報》12권3期：<진유>의 시에 “秉蘭간 초를 쥐고”의 “蘭”은 곧 요초이다. 蘭은 곧 蘭이다. 《左傳》 선공 3년에 기재를 보면: 정문공에게는 燕姑라고 하는 천첩이 있었는데, (어느 날 밤에 그녀는) 天使가 자기에게 난초를 주는 꿈을 꾸었다. 천사는 꿈에서 말하기를: 나는 伯儵이라고 하는데, 바로 너의 조상이다. 이것(난초)으로써 너의 보배로 삼거라. 난초에게는 나라 안에서 제일가는 향기가 있으니, 네가 (이를) 몸에 지니게 되면 이와 같이 아름답게 될 것이다. 꿈을 꾸고 난 뒤에, 문공을 만났는데, (문공은 그의 천첩인) 燕姑에게 그 난초를 주고 그것을 몸에 장식하도록 했다. “사람들은 그녀를 아름답다고 탄복했다.” <高唐賦>·<山海經>·<博物志>《搜神記》 등의 책에도 기재된 말이 동일하다. “그녀에게 난초를 주고 그것을 장식하도록 했다”라는 구절은 《詩》와 《賦》에 있는 것과 부합된다. <椒聊>詩의 “나에게 한 줌의 산초를 주네”라고 하는 구절 역시 이와 같은 유형이다. 陳琳의 <神女賦>에서 “한 줌의 산초를 펼쳐 나에게 주면서, 洞房에서 함께 즐기자고 청하네.”라는 구절도 증명할 만하다. 椒와 蘭은 모두 향초이다. <이소>와 <구가>에는 情人에게 향초를 준다는 말이 더욱 많다. (<溱洧> “秉蘭”之“蘭” 卽瑤草. 蘭卽蘭. 《左傳》宣公三年: 鄭文公有賤妾曰燕姑, 夢天使與己蘭, 曰: 余爲伯儵, 余而祖也. 以是爲而子, 以蘭有國香, 人服媚之如是. 既而文公

지게 되었다. 이를테면, 신의 세계로 등천을 기원하는 ‘무’들은 향초로 옷을 해 입고, 향초를 직접 먹기도 할 뿐 아니라, 향초 물에 목욕을 하기도 하고, 향초로 제단을 장식하고 향초를 불사르기도 한다. 이것이 지금에도 그대로 남아 제사를 지낼 때 향을 피우거나 불사르고 있다.<sup>24)</sup>

이와 같이 楚人에게는 일반인이나 ‘무속인’ 할 것 없이 모두가 향초에게 애정무술의 능력이 있다고 믿는 영무 문화적 풍습으로 인해, 자기 자신이 속된 무리 속에 섞여있어도 美質을 가지기를 희망한다면, 향초를 매개로 삼기만 해도, ‘좋은 만남’을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실제로 굴원의 작품 중, 특히 <이소>·<九章>·<구가> 등에서는 향초를 통한 문학적 묘사가 바로 이러한 상징체계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보이는 공통적인 점은 바로 여자(혹은 臣下)가 남자(혹은 군왕)의 애정(혹은 신임)을 얻고자 할 때 반드시 하나의 매체로 작용되었다는 것이다.<sup>25)</sup>

고로 필자가 <상부인>의 제3단계를 ‘향초로 접근하는 군신우합’이라고 설정한 것도 본 단계에서 주무인 남무가 애신의 가옥을 건축할 때 향초를 주요 자재로 하여 이로써 상부인과의 소통을 환상하는 근거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고로 본 단계에서 주무가 향초로써 애신과의 상통을 환상하는 것은 바로 세속에서 신하가 주군과의 원만한 우합을 기도하기 위하여 향초라는 매체를 사용하는 것과 동구현상임을 증명해보기로 한다.

먼저 ‘수중 가옥’의 의미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 이는 하나의

見之，與之蘭而御<sup>1)</sup>之。“人服媚之”，與 <高唐賦>《山海經》《博物志》《搜神記》等書之語同。“與之蘭而御之。”與《詩》及《賦》吻合。<椒聊>詩之“貽我握椒”亦此類。陳琳<神女賦>“申握椒以貽予，請同宴乎與房。”可證。椒、蘭皆香草也。<離騷><九歌>言證香草尤多)

24) 이상은 김인호 저 《초사와 무속》(한국: 신아사, 2001) 100쪽 참조.

25) <湘君>：“采薜荔。벽려를 채취한다”，“搴芙蓉。부용을 따다.”，“芳洲에서 두약을 채취하여，시녀에게 준다.”(采芳洲兮杜若，將以遺兮下女.)

<大司命>：“神麻의 옥색 꽃을 잘라내어，홀로 사는 司命神에게 보낸다(折疏麻兮瑤華，將以遺兮離居.)”

<山鬼>：“석란은 머리에 쓰고 두형은 띠로 두르고，香花의 가지는 꺾어서 情人에게 보낸다.”(被石蘭兮帶杜衡，折芳馨兮遺所思.)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水中’이란, 무적순결성을 상실하고 있는 지상세계를 떠나고자하는 주무의 강열한 염원이 깃든 ‘別天地’를 함축한 것으로 보이며, ‘家屋’이란 또한 그러한 별유천지에서 주무가 애신을 보좌하여 운영하는 ‘행복한 가정’이라는 하나의 작은 사회를 환상하고 있는 공간개념으로서 주무의 무적세계에 대한 동경의 일환으로 보인다. 필자는 주무의 애신을 위한 이러한 동경 속에, 시인 굴원이 평소에 소망했던, 이를테면, 어진 신하가 자신의 주군을 중심으로 그러한 별천지(이상적인 국가)를 꿈꾸어 왔던 美政世界를 여기에 함축시켜 놓았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19, 20구(筑室兮水中, 菴之兮荷蓋.)에서 장치한 수중 가옥의 연잎지붕(荷蓋)에서 바로 이 연잎인 ‘하(荷)’의 특성 즉, 비가 내려도 빗물의 흔적을 흡수하지 않는 배타적 물성과 그러나 오히려 ‘하’ 자신의 향기로서는 사방의 불결한 환경을 청결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역량을 물성으로 지니고 있는 ‘연잎’을 지붕의 덮개로 활용한 집을 짓고 있다. 시인은 주무가 애신을 위한 수중 가옥의 지붕 덮개를 바로 이러한 ‘연잎’으로 선택한 의도 속에 신하가 주군을 위해 설계하는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을 함축시키고 있는 것이다. 제정일치의 巫史문화를 지니고 있는 초나라의 실정을 감안해 볼 때, 본 단계에서의 애신을 중심으로 건립하는 주무의 집짓기는 바로 정치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국왕을 중심으로 건설하는 신하의 이상국가 만들기와 다름없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여기서 주무는 애신이 꺼려하는 지상계의 불순함을 멀리한 水中에다가 청결무구한 연잎을 사용해서 지붕을 덮고 있는 것이다.<sup>26)</sup>

26)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당시 楚國은 巫史文化의 국가로서, 祭·政이合一되어 있었던 만큼, 楚人의 심령세계에서는 神·巫·王이라는 존재는 모두 그들의 길흉회복을 좌우할 수 있는 대상이라 여겨 이들의 능력을 경외하고 있었던 만큼 이들에 대한 존재를 동일시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특히 ‘巫’는 神과 王의 중간에 위치하여 ‘神界’와 ‘人界’를 수시로 내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의 주술력으로 神과 직접 소통이 가능한 존재로 보아, 당시 초국의 왕은 人界를 주재하는 人君인 동시에 神界와 소통이 가능한 존재로서 巫界에서는 이

21, 22구(荪壁兮紫坛, 播芳椒兮成堂.)로 내려오면, 주무는 가옥의 면면을 향초로써 장식하기 시작한다. 즉 담장은 蓀草로 두르고 정원바닥은 자색 조개를 깔았으며, 실내의 사벽은 芳椒로써 장식을 하였다. 여기서 담장을 장식한 ‘蓀’<sup>27)</sup>이란, 당시 초속에서 遠古祖上으로 상징되는 향초이고,

를 靈修라고 칭하였던 것이다.

孫作雲의 《九歌山鬼考》(《清華學報》 제11권 4기, 1935년)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초국의 국왕은 정치상에서는 왕이라고 칭하지만, 종교와 제사상에서는 “靈修”라고 칭한다. “靈修”는 또한 바로 巫長의 의미이다.(楚國的國王, 在政治上稱王, 在宗教祭祀上稱“靈修”—“靈修”也就是巫長的意思.)

그러므로 人君과 人臣의 관계가 巫界에서는 靈修와 巫官의 관계로 동일시 되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굴원이 貞人群에 속하는 귀족인 점을 想起해 본다면, 그는 곧 祭司長, 즉 靈修 휘하의 巫官으로서 國家大事에 참여했던 무관이었던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여기서 무관이란, ‘巫祝’으로서, 김인호, 《초사와 무속》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薩滿이라고도 하는데, 민속에서는 이를 신령과 통하는 박수무당이라고 칭한다. 그러나 당시 楚國의 현실에서는 巫와 祝에 대한 의미가 현재 우리의 인식과는 다르다. 즉 원시 계정일치 시대에서의 “巫”란, 祭司長이란 최고의 통치자였으며, 후대로 내려와 祭政이 분리되기 시작하면서 이는 차츰 그 지위를 상실하게 되자, 왕밀의 재상인 祝의 위치로 낮아진다. 이를테면, 殷의 巫咸과 巫賢, 楚의 굴원 등은 모두 이런 祝의 성격을 지닌 인물로서 大官을 지낸 경우에 속한다.(한국: 신아사, 2001) 23쪽, 49-50쪽 참조)

- 27) 劉勰은 그의 《文心雕龍·物色》에서, 굴원이 풍·소의 정을 능히 洞鑑할 수 있었던 까닭은 역시 강산이라는 친근한 물상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견해(屈平所以能洞鑑風騷之情者, 抑亦江山之助乎)를 언급한 적이 있는데, 참으로 적절한 평가라고 생각된다. 정말 굴원이 그의 작품 중에 사용한 각종 香草들, 특히 “蓀(혹은 荃)”이란 종류의 이 향초는 楚人의 遠古한 殘留意識이 보존되어 있는 것이라면, 楚人의 遠古祖上에 대한 숭배와 그리움의 정보가 남아있을 것이니, 그들의 조상이나 先王에 대한 일종의 상징이 楚人의 집단무의식 속에 갈아 앉아서, 일종의 原始意象을 구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蓀”이라는 이러한 종류의 향초에 대하여, 古人들 대부분이 그것은 바로 현재의 菖蒲로 알고 있으며, 沈括의 《夢溪筆談》중에서는 “향초의 종류는 대체로 異名이 많다. 소위 蘭蓀이란, 지금의 菖蒲가 그것이다 香草之類, 大率多異名, 所謂蘭蓀, 卽今菖蒲是也.”라고 하고 있고, 陸佃의 《埤雅》에는 “荃이란, 菖蒲이다. 혹은 蓀音과 같다. 또 蓀이라고도 칭한다. 荃, 菖蒲也, 或讀若蓀音, 又名蓀.”라고 언급하고 있다.(熊良智, 《楚文化研究》(成都: 巴蜀書社, 2002년) 135쪽 참조. 본 자료엔 蓀草가 楚人의 傳統意象임을 各家의 견해를 통해 상세하게 증명하고 있음.)

실내의 사벽에 덧칠한 ‘芳椒’는 多子의 행운을 점지한다는 향초이다. 주무는 이렇게 가옥을 보호하는 외벽 담장에는 조상의 비호를 담은 손초를 심고, 실내의 사면 벽에는 부부 금슬로 자손 만당을 점지해주는 芳椒의 씨앗을 도색함으로써, 자신을 외면하고 있는 애신의 강림을 환상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이와 같은 향초를 매개로한 주무의 환상은 그대로 군신우합을 갈망하는 현신의 환상을 함축시킨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고대사회에서 군신우합의 근본문제는 군왕자신한테 있기 때문에, 군왕이 참언을 믿고 현능자를 실의에 빠지게 할 경우 신하의 입장에서는 속수무책이 된다.<sup>28)</sup> 이러한 경우 향초는 하나의 神物으로써 실의에 처한 사람에게 구원의 천사가 되어 군신지간의 소통에 가교역할을 해준다고 믿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말하자면, 신무지간의 교접(군신지간의 우합)을 조상신령이 도와준다면, 자손이 만당하는 복록을 누릴 수 있으니, 안심하고 강림해줄 것을 바란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이것은 바로 향초로써 접근하는 군신우합의 목적이기도 하며, 동시에 이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역시 遠古한 조상신령의 비호아래 자손이 만대에 이르도록 번영을 누릴 수 있게끔 기원하는 것임을 유추할 수 있겠다.

다음의 23, 24구(桂棟兮兰櫨, 辛夷楣兮药房.)에서는 목란으로는 서까래를(屋椽)를 만들고 계목으론 들보(屋樑)를 만들었으며, 辛夷로는 문틀을 만들고 백지로는 침실 안을 장식하고 있다. 여기서 주무는 이와 같이 건축 내부골격이 되는 기둥과 서까래까지 계수나무와 목란의 미질로써 하고, 문틀은 영춘화로 알려져 있는 辛夷<sup>29)</sup>를 자재로 선택하고, 거실 안은 따스하

28) <惜往日> :

信讒諛之混濁兮,    군왕께서는 혼탁하고 추악한 참언만 믿으시고,  
盛氣志而過之.      기세 등등하게 이 몸을 능멸하시면서 나에게 죄를 씌우십니다.

29) 辛夷: 今名은 紫玉蘭. 즉 이는 한국에서 초봄에 볼 수 있는 木蓮으로 이해하면 될 것임. 음력 2월에 開花를 함으로 남방인은 이를 “迎春花”라고 칭하며, 처음에 움이 틀 때에 그 모양이 “빨기萹”와 같이 끝이 뾰족하고 털이 보송보송한 모양이 붓과도 같아서 북방인은 木筆이라고도 칭함. 이는 맛이 “매움辛”. (潘富俊, 앞의 책 81쪽)

고 매운(性溫味辛) 물성을 지닌 ‘백지’를 이용했을 뿐 아니라, 制毒과 除毒의 작용까지 겸하게 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이는 곧 그가 섬기는 애신이 기거할 가옥의 건축 자재는 주무가 일일이 정선한 것임을 밝힘으로써 애신의 안전과 동시에 주무의 순결성을 확인시키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이는 나아가서 향초의 미질이 가지는 무술력으로 애신의 마음을 움직이고자 하는 주무의 갈망을 내포시킨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주무의 지극한 請神의 태도는 곧 군신우합을 갈망하는 신하의 자세와 동구현상의 관계라고 볼 수 있겠다. 왜냐하면, 고대사회에서의 신하라는 입장 역시 어디까지나 군왕에 의해 선택받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특히 제정일치 시대의 초나라에서는 주무가 애신을 향해 구애하는 것은 곧 무관(신하)이 자신의 운명을 좌우하는 영수(군왕)에게 그의 미질을 돋보이도록 노력하고자 하는 것과 동일한 입장이 아니겠는가?

다음 25, 26구(罔薜荔兮爲帷, 擗蕙櫛兮旣張.)에서는, 벽려를 엮어서 녹색 휘장을 만들고, 혜초를 잘라서 병풍을 만들어 펼쳐놓고 있다. 여기서 휘장으로 만든 ‘벽려’라는 향초는 수목에 기생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고, 병풍으로 만든 ‘혜초’라는 향초는 淨身 향료로 쓰이는 것이다. 말하자면 전자의 향초로는 상부인이 곧 주무의 생명을 좌우하는 주신임을 알리고자 함이고, 후자의 향초로는 주무 자신 역시 상부인처럼 청결무구한 존재임을 확인시켜 애신으로 하여금 그에 대한 선택에 의구심이 없기를 시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된다. 향초를 이용한 주무의 이러한 환상은 곧 군신우합을 갈망하는 신하의 입장과도 동구현상의 관계임이 증명된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신하 역시 주군이라는 큰 수목에 기생하는 존재에 불과함으로 그의 존재는 언제나 주군의 의지에 좌우되는 운명이니, 항상 주군과의 遇습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관리를 제일 순위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음의 27, 28구(白玉兮爲鎮, 疏石蘭兮爲芳.)에서는, 새하얀 백옥으로는 좌석을 누르는 석진을 만들고, 가옥의 곳곳에는 석란을 배치하여 향기를 진동하게 하고 있다. 여기서 가옥의 각처에 맑은 향기와 탈속적인 풍격을

띠고 있는 “石蘭”<sup>30)</sup>을 재배하여 이의 향기를 수중궁궐 전체에 진동하도록 함은 바로 주무의 애신이 석란의 향기를 통해, 애정에 대한 환상을 불러일으키길 기원하는 의도를 言外에 함축시키고 있는 것으로 봐야할 것이다. 이러한 주무의 의도 역시 성군과의 遇合을 기원하는 현신의 의도와 동구 관계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향초의 무술력을 신뢰하고 있는 巫史文化圈에 속하는 초나라인 점을 감안할 때, 자력으로 군신우합이 불가능한 신하라면, 자연히 군왕을 감동시킬 수 있는 향초를 매개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31)</sup>

다음의 29, 30구(芷葺兮荷屋, 縹之兮杜衡.)에서는, 연잎 지붕위에 다시 백지를 한 겹 더 덮어씌우고, 가옥의 사방은 향기가 진동하는 杜衡으로 둘러쌌다. 여기에서 보면, 주무는 이미 건축을 시작할 때, 청결을 상징하는 연잎을 지붕의 덮개로 사용하였었는데, 지금 건축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러서도 다시 한 번 지붕의 안전을 위해 구충 효과가 탁월한 백지로서 이엉을 만들어 연잎 덮개 위를 재차 덮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가옥의 사방주 위에도 역시 구충의 효과를 지닌 杜衡草<sup>32)</sup>를 심고 있다. 말하자면 주무는

30) 石蘭 : 《本草綱目》: “其莖狀如金釵.” 이 꽃의 색깔은 백색, 황백색, 분홍색에서 짙은 紫色 등. 모두 맑은 향기가 풍부할 뿐 아니라, 화색도 美麗하고 탈속적인 분위기를 지님. 보통 杜衡과 병칭함. 《神農本草經》에서 上品에 두며, 약재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중요약재라고 함.(潘富俊, 앞의 책 83쪽 참조)

31) <九章·思美人> :

思美人兮,	그립습니다,
擘涕而疇胎.	눈물을 닦고 우두커니 서서 바라봅니다.
媒絕路阻兮,	지금은 합당한 말을 해주는 이도 없고 길마저 막혀 버렸습니다
言不可結而詒.	하고 싶은 말 또한 전할 길이 없습니다.

.....

令薜荔以爲理兮,	薜荔에게 媒者가 되어달라고 청하고 싶으나,
憚學趾而緣木.	발을 들어 나무에 올라가기가 두렵습니다.
因芙蓉而爲媒,	부용에게 媒者가 되어달라고 부탁하고 싶으나,
憚蹇裳而濡足.	옷자락을 걷어 올리고 두 발을 적시기가 두렵습니다.

32) 杜衡 : 細辛(Asarum)식물: 『한의』 족두리풀이나 민족두리풀의 뿌리(말려서 두통·발한·거담, 코막힘 따위 증세의 약재로 씀). 본 식물은 향기가 있고 신맛

방충에 대단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데 무슨 의도일까?. 이는 필시 이 兩物의 향초가 지니고 있는 自淨效果的 물성을 무적 주술력으로 전환시켜 그의 애신과 함께 만들어 나갈 순결한 무적세계에 대한 심미이상, 즉 속세로부터의 그 어떤 불순기운의 침투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주무의 신무교접의 구도는 바로 굴원이 갈망하는 군신우합의 정치유형을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된다. 왜냐하면, 굴원의 정치생애는 그의 주군(懷王)이 기득권을 지닌 수구 세력의 ‘心治’에 눈과 귀를 돌리지 시작하면서 법치주의를 이상으로 여겼던 그의 미정이상에 대한 실현도 무려 3차에 걸쳐 좌절의 위기에 봉착하였기 때문이다.<sup>33)</sup> 그리하여 그는 군신우합의 실패는 곧 그의 미정이상에 대한 적신호임을 뼈아프게 경험한 나머지 ‘군신우합’의 성공만이 법도를 세울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는 점에서 군신우합을 방해하는 당시 수구세력의 배제가 그에게 당면한 문제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고로 그는 이들의 수구 세력을 차단시킬 수 있는 매개물을 自淨物性を 지닌 향초에서 찾아내어 그가 생각하는 문제점을 해결해보고자 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하여 배타적 물성을 지닌 ‘연잎’을 지붕덮개를 하고도 이것으로도 마음이 놓이질 않아 이번에는 구충 효과에 탁월한 ‘백지’향초를 다시 이영으로 엮어서 그 위를 채차 덮어줌으로써, 그가 생각하는 세속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환상을 하고 있다고 보아진다. 뿐만 아니라 가옥의 사면 곳곳에도 다시금 구충 효과에 특성을 지닌 ‘두형초’를 재배하는 열성을 보임으로써, 역시 향초의 주술력에 대한 신뢰의 깊이를 짐작하게 한다. 이는

을 지니며,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香料로 간주함. 고대에 道家에서는 항상 복용을 했으며, 전하는 바에 의하면: “令人身衣香”. 시인의 감정을 기탁하는 향초의 일종임. 《山海經》에서 杜衡에 대하여, 말하길, 天帝의 山上海에 일종의 草가 있는데, 모양이 冬葵같고, 냄새는 蘼蕪(芎藭궁궁이)같음. 말(馬)이 먹게 되면 健步如飛하고, 사람이 먹게 되면, 腫瘤를 치료함. 현대과학으로 분석한 것에 의하면, 杜衡은 芳香油를 구비하고 있으며, 그 주성분은 黃樟油和 丁香酚이며, 특이한 “辛香氣味”를 가지고 있어 驅蟲효과를 구비함.(潘富俊, 앞의 책 39쪽 참조)

33) 서론을 참조하기 바람.



그의 정치현실에서 그가 체감하는 ‘心治’의 결과가 가져오는 악폐의 근절을 이와 같이 향초의 자정성에 의거함으로써, 군신우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악의 요인들을 배제하고자하는 굴원의 미정이상에 대한 열망을 강렬하게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지기도 한다.

다음 31, 32구(合百草兮实庭, 建芳馨兮庑门.)에서는 정원 가득히 각종 이름 모를 향초를 심어놓고 대청아래에 있는 회랑과 대문 쪽에도 온갖 香花를 즐비하게 심어 놓았다. 이상에서 미루어 보건대, 그의 환상속의 무적 세계는 향기가 진동하는 온갖 기이한 초목으로 우거진 별유천지인 듯하다. 그리하여 그가 생각하는 애신은 바로 이러한 곳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속인과는 그 격을 달리하는 고결한 신격자라고 여겨, 그의 마음을 얻는데 초래되는 시련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고로 주무는 1,2단계에서 거듭 애신 맞이에 실패하였지만 이에 단념하지 않고, 애신을 위한 수중 건축물을 세우는 데에 정성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지금 자신의 개인적인 노력으로는 도저히 ‘請神’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와 같이 향기를 발산하는 향초의 自淨 능력으로 주무의 순결무구함을 함축시켜 얼어붙은 애신의 마음을 감동시킴으로써, 그의 강림을 기대하고 자 하는 것이다. 주무의 이러한 구애방식은 바로 당시 초나라의 영무문화의 일환을 반영한 것으로, 이는 바로 ‘군신우합’을 추구하는 현신의 입장과 동일시된다고 보아진다. 왜냐하면, 군신우합이라는 정치도식도 선택하는 자(君)와 선택받는 자(臣)의 관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臣의 입장은 자연히 ‘巫’의 경우처럼 파란이 예고되어 있다. 그러므로 애정의 환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믿는 향초는 선택을 받는 자에게는 긴요한 대상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아마도 굴원은 그의 미정이상의 실현에 필수적인 조건으로 작용하는 군신우합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계와 속계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향초를 신무교접이라는 표층구조의 매개물로 사용함으로써, 그의 내적 의도를 성취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아진다.

그러기에 그는 1,2단계의 불여의를 오히려 재기의 발판으로 삼아서 보다 높이 점프하는 제3단계를 설정하였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하여

이전 보다 더욱 강열하고 진지하게 애신의 순결함과 성스러움에 걸 맞는 수종의 향초가옥을 건설해 보임으로써, 애신의 관심을 적극적으로 자신에게 돌리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곧 애신과의 결합만이 주무의 이상인 지상의 혼탁함을 純正한 무적세계로 전환시켜 줄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주무는 당시 사회의 통념으로 알려진 향초의 ‘자정력’과 ‘애정무술력’의 힘을 빌리고자, 세상에 향초란 향초는 다 모여서 그의 건축양식의 면면에 혹은 자재로써 혹은 장식으로써 활용하여 주무의 진심이 애신의 聖心を 움직이게 할 수 있도록 십이분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아진다. 이미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주무의 신분은 영무 세계에서는 영수의 무관이나, 속계에서는 군왕의 신하이니, 본 텍스트에서 향초로써 신무교접을 갈망하는 것은 곧 이로써 군신우합의 성취를 갈망하는 정치구도와도 동구현상의 관계가 되는 것이니, 본 텍스트를 정치서정시로 볼 수 있는 개연성이 없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 3. 靈巫儀式으로 접근한 군신우합

위에서 살펴 본 3개 단계는 시작하는 1단계가 주무가 상부인과 이미 선약이 되어있는 상태를 발단으로 하고 있는지라 이어지는 2단계와 3단계가 모두 영신과 관련된 사설이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리하여 3개 단계가 모두 請神祭儀의 기원보다는 남녀상련적 애절한 추구와 향초가옥을 건축하는 면면의 섬세한 형상적 사설로 인해, 주무의 애신을 향한 소통의 염원이 言外로 넘쳐나는 애절한 영신 맞이의 광경을 보여 주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주무의 영신은 번번이 매단계마다 실패를 거듭하였다. 무엇 때문일까? 주무의 무엇이 못마땅하여 약속을 해놓고도 나타나지 않는가? 주무는 애신과의 前情을 상기하면서<sup>34)</sup> 애신이 나타나길

34) 앞의 주석 6)을 참조바람.

예시 1 : <이소>

荃不察余之中情兮, 군왕(荃)께서는 나의 내심을 이해하지 않고,

고대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1,2단계에서는 그녀를 기다리고 그녀를 마주 나가는 일에 열성을 다하였다. 그러나 3단계로 와서는 ‘佳人’이 주무를 부른다는 전언을 듣고부터는(聞佳人兮召余) 가인을 위한 수중향초가옥을 짓는 구체적인 환상 속으로 몰입하여, 당시 초속에서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행해지고 있는 ‘향초’의 무술력을 그의 신무교접의 성공을 위한 매개체로 활용하는 열정을 보여주었다. 그리하여 水中에 세운 향초궁전을 통해, 자신의 순결성과 동시에 냉각된 애신의 내심을 애정으로 전환시키고자하는 의도를 기도했으나 이것 역시 모두 애신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제4단계로 나아가는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새로이 시작하는 자세로 돌아와서 영신이 아닌 청신제의로 방식을 바꾸어 가인에게 獻祭하고 증여하는 영무의식<sup>35)</sup>을 취하고 있다.

反信讒而齎怒. .....	오히려 讒訴만 믿고 노여워하십니다.
初既與余成言兮, 後悔遁而有他.	당초에는 나와 약속도 하셨는데, 지금은 별도의 속셈이 있으신지 다시 처음 하셨던 말씀을 바꾸셨습니다.
余既不難夫離別兮, 傷靈修之數化.	나는 이별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靈修의 변화무쌍하심을 가슴 아파합니다.
예시 2 : <思美人> 擘涕而疇胎. 媒絕路阻兮, 言不可結而詒.	미인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닦으면서 우두커니 바라보네. 충정으로 간하는 말을 올리기 어렵구나
예시 3 : <석왕일> 君念怒而待臣兮, 不清澈其然否. 蔽晦君之聰明兮, 虛惑誤又以欺. 弗參驗以考實兮,  遠遷臣而弗思. 信讒諛之混濁兮, 盛氣志而過之.	군왕께서 참언을 듣고 나서 나에게 분노를 품으시고, 또한 사정의 眞僞는 따지지도 않으시네. 아침자들은 군왕의 눈과 귀를 막아버리니, 그들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가짜로 진짜를 어지럽혔네, 군왕께서는 사건을 비교 검증하여 진실을 규명하지 않으시고,  나를 멀리 방축시켜 옛정을 고려하지 않으셨네. 군왕께서는 혼탁하고 추악한 참언만 믿으시고, 기세가 등등하게 이 몸을 능멸하시면서 나에게 죄를 씌우시네.

35) 원시시대의 初民들은 신령도 인간과 똑 같이 물질생활의 요구도 하고 남녀정

본 단계는 자매편인 <상군>의 尾聲에서 보여주었던 구성과 동일한 방식으로 주무는 본 방식을 통해 다시금 미인과의 소통을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예시를 보면 :

35. 捐余袂兮江中,     나의 외의(外衣)는 강 속으로 던지고,  
 36. 遺余襟兮澧浦;     나의 한삼(汗衫)은 예수(澧水)의 강슌에 남겨 두었  
                               답니다.  
 37. 搴汀洲兮杜若,     정주(汀洲)에서 두약(杜若)을 따다가,  
 38. 將以遺兮遠者;     장차 먼 곳에 있는 정인(情人)에게 보내려고 합니다.  
 39. 時不可兮驟得,     아름다웠던 시간들 다시 얻기 어려우니,  
 40. 聊逍遙兮容與!     잠시라도 걸음을 늦추면서 애써 주변을 소요해 봅  
                               니다.

여기 35구(捐余袂兮江中)에서 獻祭物로 사용한 것은 바로 애신이 주무에게 하사했던 애신의 “외의袂”로써 주무가 평소에 애신과 동일시하면서 간직해 온 귀중한 물건이다. 주무가 이제 그 소중한 물건을 강물 속으로 헌제한다는 것<sup>36)</sup>은 주무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의 큰 결단이 아닐 수 없

감의 필요도 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길흉화복을 좌우한다고 믿는 신령에게 祭品만 獻祭할 뿐 아니라, 신을 즐겁고 기쁘게 해주기 위하여 애정도 獻祭하고, 여자도 獻祭하였다. <九歌>는 바로 이와 같은 관념아래 탄생한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山海經·大荒西經》의 기재를 보면: “夏后인 開가 하늘로 飛上하여, 3명의 미녀를 天帝에게 헌납하고는 <九辯>과 <九歌>를 흠쳐서 인간세계로 내려왔다. 開上三嬪于天, 得<九辯>與<九歌>以下.” 라고 되어 있고, 이에 대한 郭璞의 注에서도 “獻美女于天帝”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일련의 樂舞로 婚祭合一의 祭典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人神相戀의 故事는 바로 人과 神의 혼인관계를 위해서 건립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초국은 巫史文化의 국가인 만큼 神巫가 합일하고 政敎가 합일하며 神에게 獻祭하고, 또한 巫에게 獻祭하고, 王에게 獻祭하여, 神이 기쁨을 취하게 하고, 또한 바로 君王이 기쁨을 취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일련의 神巫가 交接하는 宗教儀式의 분장은 人과 神이 연애하는 歌舞演唱의 도움을 빌어 표현하는 것으로, 이는 바로 세속의 君臣遇合의 구도와 유사하다.(이상은 熊良智의 앞의 책 131쪽 참조)

36) 楊采華의 견해에 의하면, 이러한 儀式 행위, 즉 강물 속에 식물이나 옥패를

다. 왜냐하면, 그의 현제가 영험을 발휘하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이것 역시 불발로 종료된다면 공연히 그의 보물만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애신과의 遇合을 기대할 실물의 근거가 하나 더 없어지게 된다는 불안감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무는 이러한 위험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참담함을 현실로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서 현제물을 올리는 결연한 의지를 통해, 다시 한 번 애신과의 소통을 기원하는 구애의 儀式을 치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순간적으로 애신과 쌓았던 前情이 머리를 스쳐 억눌렀던 원망을 제어하지 못하자, 이번에는 숫제 그녀에게서 받았던 “속적삼(裸)”마저도 醴浦의 강변에 던져 버리는 속인의 혈기를 내보이고 있다. 주무의 이러한 행위는 그가 살아가야 할 의미를 포기하는 내심의 구체화로 이해해도 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절망의 벼랑 끝에 서서도 다시 심기를 일전시키는 請神的 기원을 회복하여 “정주(汀洲)”에서 자생하는 “두약(杜若)” 향초를 遠者(상부인)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다시 한 번 애정무술을 걸어 보고자 하는 心願을 드러냄으로써 상부인을 향한 일편단심이 끝이 없다는 것을

---

던지는 것을 두고 水神이 굴원을 괴롭히고자 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든가 혹은 굴원을 弔問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은 잘못 된 것이다. 사실상 이는 湘·沅의 두 강줄기 유역과 낙후한 夷·越地區의 百濮부락에서 내려온 영무의식의 하나라는 것이다. 漁業을 생계로 하여 물과 배에 생명을 맡기고 살아가던 그들에게 있어서 애정은 가장 중요한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여성을 갈망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물과 배 사이에서 표현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물 속으로 현제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행위가 그들 생활 속의 정신적인 支柱와 정신을 기탁하는 偶像 숭배의 대상이 되기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하여 상군과 상부인은 남방이월지역의 신이 되었는데, 초나라 문화가 이 湘·沅유역을 침투해 들어가기 전에는 아마도 상군과 상부인에 대한 百濮 부락 인민들의 마음 속에서의 지위란, 마치 오늘 날의 福建海峽 兩岸에서 존중받는 ‘媽祖’와 같은 위치였을 것이라고 추리하고 있다.

또한 저자는 굴원이 湘·沅유역에 추방되어 이 일대 지역 내에서 상군·상부인과 관련이 있는 제사활동을 목도하고 이 제신곡의 형식을 빌려서 새로운 내용을 부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굴원이후로 다시는 순수하게 상군과 상부인을 제사지내는 악곡이 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유추하고 있는데 일리 있는 추리라고 생각된다.(楊采華 著, 《屈原及其辭賦新解》 215-216쪽 참조)

보여주는 눈물겨운 광경을 드러내고 있다.<sup>37)</sup>

하여서 그는 尾聲에서, “時不可兮驟得, 聊逍遙兮容與.”라고 하여, 그의 청신의 의지를 끝까지 굽히지 않고 있음을 사설로써 피력하고 있다.

요컨대, 제4단계에서의 주무의 이와 같은 헌제와 증여를 통해 애신에게 드러내는 영무적 구애방식은 곧 군신우합의 정치유형과 동구현상임을 드러내고 있다. 왜냐하면, 당시 초국은 영무의 ‘長’이 바로 세속의 ‘人主’인 군왕과 동일한 위치이니, 이는 그대로 정치도식으로 치환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고로 주무의 주신인 상부인을 감동시키기 위해 헌제하고 증여하는 영무의식은 人臣인 무관이 그의 주군인 영수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한 것에 다름 아닌 것이 아니겠는가. 하여서 굴원은 제4단계에서 마지막으로 이러한 헌제와 증여라는 또 하나의 ‘娛神悅神’을 기할 수 있는 영무의식으로 군신우합을 위한 최후의 노력을 기울였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보아진다. 고대중국의 정치에서 미정 이상의 실현은 오로지 군신우합이라는 정치적 유형을 취하지 않고는 이루어낼 수 없다는 것을 굴원 자신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총 4단계를 통해볼 때, 본 텍스트는 詩的構造가 층위의 2원성을 지닌 것으로 이의 표층구조는 무가형식으로 신무교접관계를 주요맥락으로 하고 있으나, 이의 심층구조에서는 바로 정치서정시의 형식을 취하여 군신우합이라는 정치도식을 기본 골간으로 하여, 굴원 개인의 미정 이상의 추구에 대한 강한 집념과 동시에 당시 정치현실에서는 그것을 추구하기가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된다.

### III.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상부인>은 표층구조 상에서 보면, 시종 人神相戀의 정서로써 주무의 신무교접을 추구한 무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의

37) 앞의 주석 23) 참조바람.

초나라는 정치와 종교가 합일한 제정일치 시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필자는 이들 人(巫)·神之間의 관계 또한 바로 세속의 군신지간의 관계와 동일시 될 수 있다고 보아, 본론에서 주무의 신무교접에 대한 추구를 人臣의 군신우합에 대한 추구로 추론해 보았다. 그럼 본론에서 도출한 주요논지를 요약하여 결론으로 제시해 본다.

첫째, 텍스트의 전반 16구에서 主巫의 主神에 대한 일방적인 기다림과 그를 향한 丹心の 敬慕를 시인이 남녀상연의 관계로 표현한 것을 두고 이를 군신관계의 내포로 추정하는 정치서정시로 보았다. 그 이유는 당시의 楚國이 靈巫 국가인 政·敎합일의 巫史 문화 아래에 있다는 것을 전제했던 관계로, 무계의 주체가 神·巫에 있다면, 속계의 주체는 君·臣에 있는 것으로 이해하였기 때문이다. 하여서, 초국의 당시 상황에서 볼 때, ‘神·巫’와 ‘君·臣’의 입장은 동일시될 수 있으며, 또한 이들 兩者를 개인 가정의 구조에서 볼 때는 부부지간의 관계에 상당하다고 보아, 시인 굴원이 이들 양자의 신뢰관계를 남녀의 감정으로 다루었다고 보아졌다. 그리하여, 주무의 상부인을 향한 애뜻한 단심의 구도를 人臣인 굴원의 주군에 대한 충정의 구도와 동구현상으로 보아 이를 한편의 정치서정시로 제시한 것이다.

둘째, 제3단계에서 주무가 신무교접에 향초를 매개로 접근하는 것을 군신우합의 정치도식과 동일시한 것은 바로 楚俗과 靈巫 문화를 동구현상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당시 초속에 남녀지간의 연애에서나 혼사에서, 향초를 통해, 애정에 대한 환상을 불러일으켜 행복한 결실을 기원하였듯이 <상부인>에서도 초속의 이러한 무풍을 애신을 위한 수중 집짓기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를 테면, 시인은 향초가 지닌 주술력으로 수중가옥 면면을 하나의 이상적인 무적구도로 탄생시켜, 애신을 향한 충정과 그의 무적이상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곧 시인 굴원의 主君에 대한 군신우합을 열망하는 심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는 그가 추구하는 美政理想에 대한 정치도식의 일환이기도 하다고 보았다. 고로 이의 심층구조에서 나타난 향초의 주술력은 군신우합이라는 정치도식에서 시인 굴원이 향초

의 주술력을 매개로 군신지간의 소통을 염원하는 심리의 면면을 구체화시킨 것에 다름 아닌 것으로 보아, 본 텍스트를 한편의 정치서정시가 될 수 있는 근거로 제시하였다.

셋째, 제4단계에서의 靈巫儀式은 주무가 애신과의 소통을 위한 마지막 請神祭儀로서 이는 애신 상부인과의 심리적 거리를 좁히기 위한 또 하나의 방편으로 추론하였다. 이는 초국이 제정일치의 국가인 점을 감안할 때, 주무의 ‘娛神·悅神’을 위한 이 儀式은 바로 巫官인 人臣이 靈修인 主君을 ‘娛君·悅君’하게 하는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다고 보아, 필자는 이를 굴원이 그의 지상과제인 미정이상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정치도식의 하나로 구상하였다고 보았던 것이다.

요컨대, 굴원은 본 텍스트를 층위의 2원성을 지닌 구도로 설정하여, 神·巫交接의 ‘不如意’라는 표층구조 속에 굴원 개인의 불여의했던 군신우합의 政治歷程을 함축시켜 미정이상에 대한 실현을 도모해보고자 얼마나 ‘군신우합’을 갈망했던가를 생각해 보게끔 하고 있다.

그러나 굴원의 이러한 忠貞의 표현은 당시 中原의 士人 계급의 重道의식<sup>38)</sup>이 왕권의 政統에 영향을 주었던 전국시대 후반기의 풍조로 볼 때, 오히려 보조를 같이 하지 못한 정치유형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마도 그가 아무리 變法家로서의 진보의식을 가진 정치가였다고 해도, 초국이 아직 政教合一의 국가일 뿐 아니라, 그 자신조차도 오히려 이러한 국가형태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은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38) 《呂氏春秋·察賢》(北京: 中華書局 2009년): “공명을 세움도 또한 그러하였다. 중요한 점은 현인을 만나는데 있으니, 위문후는 자하를 스승으로 상대했고, 전자방은 벗으로 상대했으며, 단간목은 예를 갖추어 상대했다. 그러자 자연히 나라는 다스려지면서도 그들 자신은 한가하였다.”(立功名亦然, 要在得賢. 魏文侯師卜子夏, 友田子方, 禮段干木, 國治身逸.) 말하자면, 당시 중원의 정치 유형은 신하가 일방적으로 왕권을 찬미하는 구도에서 오히려 현자가 군왕을 학생이나 벗으로까지 상대하는 경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이는 왕권을 神權으로 보던 고대정치사회의 정치유형과는 그 질을 달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參考文獻 >

- 王逸, 《楚辭章句》(商務印書館, 1937)
- 楊采華, 《屈原及其辭賦新解》(武昌: 武漢大學出版社), 1994.
- 熊良智, 《楚文化研究》(成都: 巴蜀書社, 2002년)
- 孫作雲, <九歌·山鬼考>《清華學報》 제11권 4기, 1935년
- 聞一多, <高禘郊社祖廟通考跋>《清華學報》 12권3期
- 司馬遷, 《史記》(西安: 三秦出版社, 1988)
- 新編 許維遙 主編, 《諸子集成-呂氏春秋集釋》(北京: 中華書局, 2009년)
- 李學勤 主編, 《十三經注疏·禮記》(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9년)
- 楊家駱 主編, 《漢書·地理志》(臺北: 鼎文書局, 中華民國, 72년)
- 袁珂 譯注, 《山海經》(貴州: 貴州人民出版社, 1995년)
- 黃滌明 譯注, 《搜神記全譯》(貴州: 貴州人民出版社, 1996년)
- 桓譚, 《新論》《太平御覽》 권 735(河北教育)
- 淸·乾隆19년 宗陸堂刻本の 《荊門州志》
- 淸·乾隆28년 《東湖縣志》
- 周振甫, 《文心雕龍今譯》(北京: 中華書局, 1986년)
- 김인호, 《초사와 무속》(한국: 신아사, 2001)
- 拙稿, <湘君과 湘夫人을 통해 본 巫의世界> 《中國語文學》 제50집
- 拙稿, <<九歌>에 나타난 君臣遇合>《中國語文學》 제52집
- 潘富俊, 《楚辭植物圖鑒》(上海: 上海書店出版社, 2003년)

< 中文提要 >

本文의 題目爲: 《九歌》中表現의 君臣遇合一以<湘夫人>爲中心; 由此, 本文圍繞《楚辭·九歌》中的<湘夫人>詩篇, 從詩中表現의 話者主巫與 湘夫人의 關係, 試論從主巫對神·巫交接의 追求到人臣의 君·臣遇合의 向

往。本文的論點，概括如下：

第一，在詩篇的前16句中，詩人表現了主巫對主神單方面的期待和執著的敬慕之情，這種男女愛戀之情，是暗含了君臣關係在內的政治抒情。這是因為，當時的楚國是一個以政·教合一的巫史文化為前提的靈巫國家，如果說巫界的主體在神·巫的話，則俗界的主體在君·臣。因此，從楚國當時的情況來看，神·巫和君·臣的立場是同等對應的，而且從家庭結構的層面上開，這兩者的關係還與夫妻之間的關係相對應，由此可知，詩人屈原以男女間的感情來看待這兩者的信賴關係。主巫對湘夫人戀戀不舍的愛慕構造與身為人臣的屈原對君主的忠誠構造，可視為一種同構的現象，這表明了這是一篇政治抒情詩。

第二，在詩的第三段中，以香草為媒介，主巫要實現的神·巫交接與君·臣遇合的政治圖式是對應的，這是因為楚國風俗與靈巫文化同構的原因。事實上，在當時楚國的風俗中，在男女間戀愛或婚姻上，香草可以激發人們對愛情的幻想，對幸福婚姻的企盼；同樣，在〈湘夫人〉中，楚國的這種巫風文化在水中為愛神造屋的描寫中得以體現。因此，詩人通過香草的咒術力，對水中房屋各個部分進行理想的巫的構造，表現了對愛神的衷情和巫的理想，這正是產生於詩人屈原對君主抱有的君·臣遇合的渴望心理，是他所追求的美政理想的政治圖式的一部分。故香草表現出的深層次咒術力，從君·臣遇合的政治圖式來看，正是詩人屈原祈願君臣之間疏通融洽的心理的具體表現，這為詩篇的政治抒情詩性質提供了依據。

第三，第四段中的靈巫儀式，是主巫與愛神交流的最後的請神祭儀，這種儀式也可以推斷為縮短與愛神湘夫人的心理距離的一種手段。楚國是一個祭政一致的國家，從這一點上考慮，主巫“娛神·悅神”的儀式，與身為人臣的巫官對靈修的主君進行的“娛君·悅君”是同等對應的，筆者認為，這是屈原崇高的美政理想得以實現的政治圖式的一種構想。

綜上所述，屈原在這首詩中設定了二元層面的構造，神·巫交接“不如意”的表面構造暗含了他個人不如意的君·臣遇合的政治歷程，這讓人想到他為了實現美政理想是多麼地渴望“君·臣遇合”。

然而，從當時道·勢相爭的戰國時代後半期的社會風潮來看，屈原的這種忠君表現卻是和當時中原的政治理念有一定差距的。屈原即使是一名具有變法家般進步意識的政治家，楚國也仍舊是一個政教合一的國家，而且連屈原本本人對這種國家形態也不抱有任何根本性的疑慮。

주제어 : 迎神, 男女相戀, 神巫交接, 香草, 靈巫儀式, 君臣遇合, 美政理想

